Korean J. of Child Studies
Vol. 35, No. 2, 63-84, April 2014
DOI : dx.org/10.5723/KJCS.2014.35.2.63

www.childkorea.or.kr
pISSN1226-1688
eISSN2234-408X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 및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arental Differential Treatment and Social Support on the Self-esteem and Internalized Problems among Adolescents with Siblings with Special Needs*

이선영(Seon Yeong Lee)[1)]
임지영(Ji Young Lim)[2)]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parental differential treatment and social support perceived by adolescents with siblings with special needs on their self-esteem and internalized problems. The subjects comprised one hundred 12- to 18-year-old adolescents with siblings with special need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dolescents' self-esteem by participation in support programs for siblings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Second,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f parental differential treatment on adolescents' self-esteem.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 of social support (family, friends, and teachers) on adolescents' self-esteem. Fourth, there was no effects of paternal differential parenting on adolescents' internalized problems.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 of differential maternal affection on adolescents' internalized problems. Fifth, 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 of social support, especially in terms of support provided by friends, on adolescents' internalized problems. In conclusion, social support and differential maternal affection both have an important role in adolescents' self-esteem and internalized problems.

* 본 논문은 2013년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본 논문은 2013년도 한국아동학회 추계 학술대회 구두 발표 논문임.
1)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2)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아동가족학전공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Ji Young Lim, School of Child Studies, Major in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80 Daehak-ro, Buk-gu, Daegu 702-701, Korea
E-mail : limj@knu.ac.kr

© Copyright 2014,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Keywords :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adolescents with siblings with special needs), 자아존중감(self-esteem), 내재화 문제(internalized problems),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parental differential treatment),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Ⅰ. 서 론

형제는 서로에게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상호간의 특별한 지원체계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인생 전반에 걸쳐 서로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Powell & Gallagher, 1993). 그러나 형제 중에 장애아가 있을 경우 이러한 형제관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영향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가 보고되고 있다(Gallagher, Beckman, & Cross, 1983). 장애형제를 둠으로 해서 생기는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장애형제를 가진 청소년의 경우 자립심과 독립성이 높고, 또래들에 비해 성숙하며 책임감이 높아 사회에 더 잘 적응하고, 포용력과 이해력이 높으며, 친사회적 행동과 자신감도 높다(Faux, 1991; Houtzager, Grootenhuis, Caron, & Last, 2004).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고들도 많은데, 장애형제로 인해 일반형제만 있는 청소년들 보다 부모로부터 과도한 기대를 받아 소외감과 부담감을 느끼거나, 외로움, 분노, 책임감에 대한 중압감 등을 느껴서 심리적 적응에 더 많은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Kang & Shin, 2001; Lee, 2010; Powell & Gallagher, 1993).

게다가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은 자아정체감이 확립되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가족의 요구와 기대 때문에 정체성 및 역할의 혼란을 겪게 되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낮아진 자아존중감 등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Gold, 1993; Lee, 2012; McHale & Gamble, 1989; Seligman & Daring, 2007; Williams et al., 2002). 물론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또래보다 높다고 보고되거나(Jung, 1992), 장애형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Hall, 1988; Lee, 2007)고 보고한 선행연구들도 있다. 이렇듯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해서는 비일관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성인기의 적응 및 능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Trzesniewski et al., 2006)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장애아를 형제로 둔 청소년의 경우, 비행과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보다는 우울과 불안 같은 내재화 문제에도 노출되기 쉽다(McHale & Gamble, 1989). 내재화 문제는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억제하거나 적절히 표현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정서적 문제와 관련된 증상으로서 위축행동, 우울, 불안 등 지나친 자기통제로 겪게 되는 문제를 말한다(Achenbach, 1991). 장애아를 형제로 둔 청소년이 내재화 문제에 노출되기 쉬운 이유는 이들이 부모가 이미 장애형제로 인한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문제를 내면화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Houtzager, Grootenhuis, Hoekstra-Weebers, & Last, 2005; Vermaes, Susante, & Bakel, 2012; Wood, Sherman, Hamowka, Blackman, & Wirrell, 2008). 실제 장애형제를 둔 청소년은 장애형제를 가짐

으로 해서 외로움, 소외감, 두려움, 질투, 슬픔 등과 같은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건강하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 심각한 내면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Baek, 2009).

이처럼 장애형제를 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들은 부모의 관심과 양육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장애가 없는 자녀의 요구보다 장애자녀의 요구에 더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Joo, 1993) 차별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높다. 차별적 양육행동이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대하지 않고 차이를 두어 다르게 반응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Sang, 1998). 많은 선행연구들이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자녀의 낮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지만(Feinberg et al., 2000; Lee, 2003; Lee, 2004; Sang, 1998), 장애형제를 가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 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장애형제를 가진 청소년은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을 지각할 가능성이 높고, 일반 청소년 및 형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줄 것이라 유추해볼 수 있으므로 장애형제를 가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 가정해볼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은 자아존중감 뿐 아니라 내재화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McHale, Slaon과 Simeonsson(1986)은 장애형제가 있는 6세~15세 사이의 정상형제들이 갖고 있는 장애관련 부정적인 정서 중 가장 큰 것은 부모가 자신들보다 장애형제를 더 좋아할 것이라는 걱정이라고 밝혔는데, 이것은 장애형제가 있을 경우 부모의 애정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더 나아가 이러한 두려움이 그들의 내재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실제 선행연구들은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을 부정적으로 지각할 경우 분노, 불안, 심리적 부적응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McHale & Gamble, 1989; Wolf, Fisman, Ellison, & Freeman, 1998).

부모의 양육행동과 더불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또 다른 변인으로 많은 연구들이 사회적 지지를 꼽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인간이 사랑과 존중을 받으며 나아가 한 사회의 구성원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를 말한다(Cobb, 1976). Harter(1983)와 Sandler, Miller, Short와 Wolchik(1989)은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를 막아주어 자아존중감을 유지하도록 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게다가 사회적 지지는 일반가정보다 장애아동 가정에서 더 의미 있는 요인으로 밝혀져 왔다(Carnes & Quinn, 2005). 즉, 장애형제를 가진 청소년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 경우,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Alper, Schloss, & Schloss, 1994; Lim, 2002),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Kim, 2009) 자아존중감과도 밀접히 관련이 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행동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0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부모의 지지와 또래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 경우 위축행동과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이 낮음을 보였다. 일반형제 관계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위축행동과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가 낮다고 밝혀(Eoh, 2005; Yoon & Kang, 2011), 사회적 지

지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동안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및 내재화 문제와 같은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의 일반적 양육태도와 관련한 연구(Bang 2007; Lee, 2009), 형제관계와 관련된 연구(Choi, 2011; Shin, 2002), 스트레스와 같이 심리적 적응요인 자체에 대한 연구(Lee, 2010; Yoon, 2010)가 대부분이다. 또한 지금까지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만이 주로 다루어져왔기 때문에(Baek, 2005; Bang 2007; Lee, 2009) 아버지의 양육태도나 양육참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장애아가 있는 부모의 일반적인 양육태도나 행동 보다는 장애아가 있음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좀 더 특징적인 행동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장애자녀와 장애가 없는 자녀를 함께 양육함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나 사회의 관심의 부족으로 장애아의 형제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방치되어 있는 편이고,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복지정책들이 장애아동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Park & Jeon, 2009), 그리고 2012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역시 장애형제를 둔 아동·청소년을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는 현실적인 정책 제언을 위해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에 따른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나 내재화 문제의 차이에 대해 연구를 하기는 하였으나 관련 연구결과가 부족하고(Seo & Park, 2009), 연구 결과조차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다(Han, 2011; Lee & Park, 2010; Lim, 2002; Seo & Park, 2009; Vermaes, 2012). 따라서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장애관련 변수에 따른 장애형제를 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성별, 연령, 지각된 가정소득수준)와 장애관련 변수(장애형제관련 형제순위, 형제의 장애유형, 형제의 장애등급, 장애형제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유무)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의 차이에 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장애형제를 가진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장애형제를 가진 청소년의 발달상황을 이해하며,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제도적, 교육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구체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장애관련 변수에 따라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2-1.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2-2.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 및 내재화 문제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3-1.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는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3-2.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는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 이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부터 장애진단 및 등급을 받은 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장애유형(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등) 및 등급(1급~6급)에 해당하여 복지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형제가 있는 비장애청소년을 의미한다.

연구대상은 D시 및 U시, K시에 소재한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내에 있는 특수학급, 복지관, 병원, 치료실 등을 이용하는 장애형제를 가진 초등학교 5학년(12세)부터 고등학교 2학년(18세)인 청소년이었다. 대상을 초등학교 5학년인 12세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 18세로 정한 것은 이 시기가 자기보고식 질문을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시기이면서 12세는 전형적인 청소년기의 시작인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National Youth Policy Institude, 2004). 학업적 스트레스가 많은 고등학교 3학년인 청소년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연구도구

1)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 척도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은 Sang(1998)이 제작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Sang(1998)의 척도는 Han(1989)이 Rohner(1986)의 Parental Acceptance - Rejection Questionnaire를 기초로 제작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 척도와 Daniels와 Plomin(1985)이 제작한 SIDE(Sibling Inventory of Difference Experience) 중 Differential Parental Treatment Scale을 합쳐서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 척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별적인 양육행동을 각각 측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애정요인(9문항)과 통제요인(4문항)으로 구성된 총 13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애정요인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통제요인의 경우 나를 더 많이 통제하는 것으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전체 Cronbach α는 .77(부), .77(모) 이었으며, 하위요인인 애정적 차별은 α = .77(부), α = .76(모), 그리고 통제적 차별은 α = .83(부), α = .84(모)로 나타났다.

2) 사회적 지지 척도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Dubow와 Ullman(1989)의 사회적 지지 평가도구(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S)를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100)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Boy		48(48%)
	Girl		52(52%)
Age	12		12(12%)
	13		17(17%)
	14		9(9%)
	15		16(16%)
	16		17(17%)
	17		14(14%)
	18		15(15%)
Perceived family income	Top		22(22%)
	Middle		53(53%)
	Bottom		25(22%)
Position in relation to sibling having special needs	Older sibling		66(66%)
	Younger sibling		34(34%)
Siblings's types of disability	Physical	Brain lesions	37(37%)
		Physical disability	7(7%)
		Language disorder	2(2%)
	Mental	Intellectual disability	38(38%)
		Developmental disability	10(10%)
		Mental disorder	6(6%)
Siblings's disability rating	First grade		47(47%)
	Second grade		24(24%)
	Third grade		18(18%)
	Fourth grade and over		11(11%)
Participation in support programs for siblings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Yes		31(31%)
	No		69(69%)

Han(1996)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로서 친구지지, 가족지지, 그리고 교사지지의 세 가지 하위요인이 각각 8문항 씩 총 24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사회적 지지의 Cronbach *α*는 .95이었으며, 하위요인인 가족지지는 .91, 친구지지는 .92, 교사지지는 .90으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척도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Kim (1998)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

존중감 척도는 Kim과 Kim(1996)이 Harter(1985)의 척도를 근거로 하여 개발한 것을 Kim(1998)이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신체외모 자아(7문항), 신체능력 자아(6문항), 친구관련 자아(9문항), 학업적 및 전반적 자아(10문항), 성격적 자아(6문항), 가정적 자아(6문항), 교사관련 자아(5문항)로 총 48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 *α*는 .93으로 나타났다.

4) 내재화 문제 척도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는 Achenbach(1991)가 개발한 척도를 Oh 등(2001)이 표준화한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YSR)를 사용하였다. K-YSR은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만 12세에서 만 17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측정하며, 위축행동, 신체증상, 우울, 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 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 자해/정체감의 9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3점 리커트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K-YSR 중 내재화 문제영역에 해당되는 위축행동(7문항), 신체증상(9문항), 우울/불안(16문항)인 32문항을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가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재화 문제 Cronbach *α*는 .90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예비 조사는 본 조사에 앞서 질문지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도, 질문지 작성상의 문제점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2년 8월 D시와 K시에 거주하는 장애형제가 있는 12세~18세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2년 9월과 10월 D시 및 U시, K시 소재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치료실,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형제를 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먼저 본 연구자가 장애아동 담당 실무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 설명을 숙지한 실무자들이 장애아동 어머니들에게 연구 참여 안내문과 질문지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안내문을 읽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장애아동 어머니들만 질문지를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장애가 없는 청소년 자녀가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 자녀가 직접 작성한 질문지는 어머니가 실무자들에게 전달하여 본 연구자가 간접 회수하거나 직접 회수하였다. 질문지는 총 186부를 배부하여 112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대상이 적합하지 않거나 응답이 부실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10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PASW Statistics 18(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분석에서 사용한 변인들에 대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장애관련 변수에 따라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아존중감 및 내재화 문제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 및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내재화 문제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분석

1.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내재화 문제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기술통계분석은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먼저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의 차별적 양육행동 전체점수의 평균은 40.95점이었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13~65점이었으므로 이는 중간수준임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차별적 양육행동의 하위변인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애정적 차별은 26.82점, 통제적 차별은 14.31점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를 고려해 보았을 때 중간수준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점수의 평균은 42.40점이었으며, 가능한 점수 범위를 고려해 보았을 때 중간 수준보다 조금 높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의 하위변인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애정적 차별은 28.22점, 통제적 차별은 14.18로 중간수준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평균점수는 90.14점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가 24~120점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중간 수준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별로 평균 점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지지는 30.51점, 친구지지는 31.51점, 교사지지는 28.12점으로 가능한 점수범위가 모두 16~40점인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세 가지 하위요인의 평균 점수는 모두 중간수준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 중 하나인 자아존중감 점수의 평균은 172.91점으로 가능한 점수범위인 48~240점을 고려해볼 때, 이는 중간수준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종속변인인 내재화 문제의 전체 평균점수는 11.77점이었다. 내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 = 100)

Variables			Possible score range	Measured score range	*M*	*SD*
Parenatal differential treatment	Father	Affection	9~45	15~41	26.82	4.25
		Control	4~20	8~20	14.13	3.12
		Total	13~65	28~61	40.95	5.73
	Mother	Affection	9~45	15~45	28.22	4.36
		Control	4~20	8~20	14.18	2.97
		Total	13~65	31~65	42.40	5.71
Social support	Family		8~40	16~40	30.51	5.29
	Friends		8~40	16~40	31.51	5.03
	Teacher		8~40	12~40	28.12	5.61
	Total		24~120	47~117	90.14	13.57
Self-esteem			48~240	114~228	172.91	24.66
Internalized problems			0~64	0~45	11.77	10.40

재화 문제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0~64점인데, 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본 연구 대상자인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는 중간 수준보다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2.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장애관련 변수에 따른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내재화 문제의 차이

1)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장애관련 변수에 따른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차이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에 앞서 사회인구학적 변수 및 장애관련 변수에 따라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내재화 문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 및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장애 유형의 경우에는 적은 연구대상수로 인해 장애유형별로 충분한 수의 연구대상이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2조에 따라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어 범주화 한 후, 본 분석에서 장애 유형 변수로 포함시켰다. 이때 신체적 장애에는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언어장애가 포함되며, 정신적 장애에는 발달장애(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가 포함된다.

분석 결과,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경험 유무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72, p < .01). 즉,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M = 181.61, SD = 24.10)의 자아존중감이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M = 168.55, SD = 23.8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 이외의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수인 성별(t = .66, *ns*), 연령(F = .87, *ns*), 가정의 소득수준에 대한 지각(F = 2.74, *ns*)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관련 변수인 장애형제 관련 출생순위(t = -.66, *ns*), 형제의 장애유형(t = 1.47, *ns*), 형제의 장애등급(F = .37, *ns*)에 따라서도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장애관련 변수에 따른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의 차이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에 앞서 사회인구학적 변수 및 장애관련 변수에 따라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내재화 문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기 독립표본 *t* 검증 및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수인 성별(t = -1.57, *ns*), 연령(F = 1.63, *ns*), 가정의 소득수준에 대한 지각(F = .32, *ns*)에 따른 내재화 문제의 차이는 유

〈Table 3〉 Differences in adolescents's self-esteem by participation in support programs for siblings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N* = 100)

Variables	(N)	M	SD	t
Participation in support programs for siblings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Yes(31)	181.61	24.10	**2.72****
	No(69)	168.55	23.82	

**p < .01.

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관련 변수인 장애형제 관련 출생순위(t = 1.53, *ns*), 형제의 장애유형(t = -1.35, *ns*), 형제의 장애등급(F = .22, *ns*),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여부(t = -1.31, *ns*)에 따라서도 내재화 문제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알아보기에 앞서, 연구변수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먼저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그리고 다중공선성 확인을 위해 점검한 분산 팽창계수(VIF)도 모두 2.3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의 모형1에서는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성별, 연령, 장애형제관련 출생순위, 형제의 장애유형, 형제의 장애등급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고, 이때 성별, 장애형제관련 출생순위, 장애유형은 더미변수(남 = 0, 여 = 1 / 손아래 = 0, 손위 = 1 / 신체기능의 장애 = 0, 정신적 장애 = 1)로 만들어 투입하였다. 모형2에서는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를 투입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은 아버지와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향 각각을 알아보기 위해 따로 투입하여 살펴보았으며, 하위요인인 애정적 차별과 통제적 차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사회적 지지 또한 가족지지, 친구지지, 그리고 교사지지로 나누어 하위요인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앞서 설명한 방식대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제변수를 투입한 모형 1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수가 없었다. 반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parental differential treatment,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internalized problems

	1	2	3	4	5	6	7	8	9
1. Paternal differential treatment - affection	1								
2. Paternal differential treatment - control	.190	1							
3. Maternal differential treatment - affection	**.355****	.151	1						
4. Maternal differential treatment - control	.149	**.766****	.185	1					
5. Social support - family	**-.217***	-.170	**-.437****	**-.202***	1				
6. Social support - friends	-.156	.005	**-.236***	-.082	**.527****	1			
7. Social support - teacher	-.066	.123	**-.227***	.006	**.564****	**.667****	1		
8. Self-esteem	**-.229***	.101	**-.304****	-.001	**.710****	**.719****	**.750****	1	
9. internalized problems	.132	.054	**.397****	.068	**-.418****	**-.422****	**-.343****	**-.516****	1

$^{*}p$ < .05. $^{**}p$ < .01. $^{***}p$ < .001.

면에, 아버지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 하위요소들을 포함한 모형 2에서는 통제변수 중 성별(β = -.13, p < .01)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즉, 장애형제가 있는 경우 남자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여자청소년보다 높았다.

또한 독립변수 중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가족지지(β = .36, p < .001), 친구지지(β = .34, p < .001), 그리고 교사지지(β = .30, p < .001)는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차별적 양육행동인 애정적 차별과 통제적 차별은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즉,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들이 가족의 지지나 친구들로부터의 지지, 그리고 교사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2(F = 32.07, p < .001)는 통제변수만 포함한 모형1(F = .72, *ns*)에 비해 74.9%의 설명력 증가를 보였다.

또한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앞서 설명한 방식대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제변수만 투입한 모형 1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수가 없었다. 반면에,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Table 5〉 The effects of paternal differential treatment and social support on the self-esteem among adolescents with siblings with special needs

Independent variables			Self-esteem					
			Model 1			Model 2		
			B	SE	β	B	SE	β
Control variables	Gender		-3.48	5.09	-.07	-6.61	2.620	**-.13****
	Age		-.74	1.37	-.060	-.74	.69	-.06
	Sibling position		-3.59	5.73	-.07	.18	2.94	.00
	Types of disability		-7.85	5.14	-.16	-1.69	2.56	-.03
	Disability rating		.57	1.95	.03	.31	.96	.02
Independent variables	Paternal differential treatment	Affection				.55	.31	.10
		Control				-.77	.46	-.10
	Social support	Family				1.69	.31	**.36*****
		Friends				1.68	.35	**.34*****
		Teacher				1.33	.33	**.30*****
R^2			.038			.787		
$adjR^2$			-.015			.762		
R^2 change			.038			.749		
F			.718			**32.07*****		

**p < .01. ***p < .001.

〈Table 6〉 The effects of maternal differential treatment and social support on the self-esteem among adolescents with siblings with special needs

Independent variables			Self-esteem					
			Model 1			Model 2		
			B	SE	β	B	SE	β
Control variables	Gender		-3.48	5.09	-.07	-8.47	2.65	**-.17****
	Age		-.74	1.37	-.06	-.89	.69	-.07
	Sibling position		-3.59	5.73	-.07	.21	2.98	.00
	Types of disability		-7.85	5.14	-.16	-1.35	2.63	-.03
	Disability rating		.57	1.95	.03	.64	.98	.03
Independent variables	Maternal differential treatment	Affection				-.33	.35	-.06
		Control				-.44	.46	-.05
	Social support	Family				1.83	.33	**.39*****
		Friends				1.82	.36	**.37*****
		Teacher				1.32	.33	**.30*****
R^2			.038			.779		
$adjR^2$			-.015			.754		
R^2 change			.038			.742		
F			.718			**30.73*****		

**p < .01. ***p < .001.

사회적 지지 하위요소들을 포함한 모형 2에서는 통제변수 중 성별(β = -.17, p < .01)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중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가족지지(β = .39, p < .001), 친구지지(β = .37, p < .001), 그리고 교사지지(β = .30, p < .001)는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차별적양육행동인 애정적 차별과 통제적 차별은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즉,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이 들어간 회귀모형에서도 장애형제가 있는 경우,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 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고, 가족지지나 친구들의 지지 혹은 교사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2(F = 30.73, p < .001)는 통제변수만 포함한 모형1(F = .72, ns)에 비해 74.2%의 설명력 증가를 보였다.

4.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내재화 문제 미치는 영향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앞서 설명한 자아존중감과 동일한 모형으로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제변수만 투입한 모형 1에서는 내재화 문제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수가 없었다. 반면에 아버지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 하위요소들을 포함한 모형2에서는 통제변수 중 성별(β = .24, p < .05)이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중 친구지지(β = -.34, p < .01)만이 내재화 문제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차별적 양육행동인 애정적 차별과 통제적 차별은 내재화 문제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즉, 장애형제가 있는 경우, 남자청소년의 내재화 문제가 여자청소년보다 적고, 친구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내재화 문제를 덜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형1에서 투입한 성별과 연령, 형제순위, 장애유형, 장애등급을 통제하고, 모형2에 아버지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를 추가로 투입한 결과, 증가한 설명량은 24.6%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동일한 위계모형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Table 7〉 The effects of paternal differential treatment and social support on the internalized problems among adolescents with siblings with special needs

Independent variables			Internalized problems					
			Model 1			Model 2		
			B	SE	β	B	SE	β
Control variables	Gender		3.26	2.10	.16	4.99	1.96	**.24***
	Age		.49	.56	.09	.73	.52	.14
	Sibling position		3.05	2.36	.14	.80	2.20	.04
	Types of disability		3.20	2.12	.15	1.98	1.95	.10
	Disability rating		-.15	.80	-.02	.00	.72	.00
Independent variables	Paternal differential treatment	Affection				-.02	.23	-.01
		Control				-.31	.34	-.09
	Social support	Family				-.47	.23	-.24
		Friends				-.71	.26	**-.34****
		Teacher				.03	.25	.01
R^2			.077			.323		
$adjR^2$			.027			.246		
R^2 change			.077			.246		
F			1.543			**4.16*****		

*p < .05. **p < .01. ***p < .001.

〈Table 8〉 The effects of maternal differential treatment and social support on the internalized problems among adolescents with siblings with special needs

Independent variables			Internalized problems					
			Model 1			Model 2		
			B	SE	β	B	SE	β
Control variables	Gender		3.26	2.10	.16	3.86	1.92	.19*
	Age		.49	.56	.09	.67	.50	.13
	Sibling Position		3.05	2.36	.14	.38	2.16	.02
	Types of disability		3.20	2.12	.15	1.35	1.91	.07
	Disability rating		-.15	.80	-.02	.17	.71	.02
Independent variables	Maternal differential treatment	Affection				-.50	.25	-.22*
		Control				-.08	.33	-.02
	Social support	Family				-.34	.24	-.17
		Friends				-.68	.26	-.33**
		Teacher				.03	.24	.02
R^2				.077			.345	
$adjR^2$				.027			.270	
R^2 change				.077			.268	
F				1.543			4.585***	

*p < .05. **p < .01. ***p < .001.

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제변수를 투입한 모형 1에서는 내재화 문제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 하위요소들을 포함한 모형 2에서는 통제변수 중 성별(β = .19, p < .05)이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의 경우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 중 애정적 차별(β = -.22, p < .05)과 사회적 지지 중 친구지지(β = -.33, p < .01)가 내재화 문제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형제가 있는 남자청소년의 경우 여자청소년보다 내재화 문제가 적고, 어머니의 애정적인 차별을 높게 지각할수록, 그리고 친구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내재화 문제를 덜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형1에서 투입한 성별과 연령, 형제순위, 장애유형, 장애등급을 통제하고, 모형2에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를 추가로 투입한 결과 증가한 설명량은 26.8%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이해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통해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들(Han, 2011; Lee & Park, 2010; Lim, 2002)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형제를 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들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 경험유무를 주요변수로 고려하기를 제안한다.

또한 청소년기가 다른 발달 시기에 비해 친구나 또래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경험적 연구가 보여주는 프로그램 효과에 근거하면, 장애형제를 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장애 형제를 둔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적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그 외 다른 사회인구학적 그리고 장애관련 변인들에 따라서는 자아존중감 및 내재화 문제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만성질환 형제를 가진 청소년의 성별, 연령, 출생순위가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를 포함한 심리적 기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한 Vermaes(2012)의 메타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지각된 가정소득과 형제의 장애등급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었다는 Seo와 Park(2009)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인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 많은 수의 표집이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적은 수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특히 장애유형 및 등급과 같은 장애관련 변수들에 있어서는 적은 수의 연구대상으로 인해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른 분류에 다소 차이가 있어 선행 연구와 본 연구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돌려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은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의 경우 가족지지, 친구지지, 그리고 교사지지 모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만성질환 및 장애형제를 가진 청소년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보고한 Williams 등(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 친구, 가족, 그리고 교사에게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되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가치를 갖게 되고,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형제를 둔 청소년들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의 큰 영향력에 비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은 장애형제를 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기가 되면서 부모에게 상대적으로 덜 의존하게 되고, 관계망이 밖으로 확장되면서 또래나 교사의 지지에 더욱 큰 의미를 두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게다가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는 일반형제가 있는 청소년에 비하여 자립심과 독립성이 높고, 성숙한 특성이 있어(Adams et al., 1991; Houtzager et al., 2004; Kim, 2002) 장애형제로 인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면서 처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지지를 어느 정도 지각하는 것만으로도 자아존중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셋째,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본 결과, 아버지의 차별적 양육행동은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반면,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의 경우에는 애정적인 차별이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자신보다 애정적으로 장애형제를 더 편애한다고 지각하면 내재화 문제를 더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의한 갈등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Park(2007)의 연구결과로도 지지된다.

또한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문제행동 간 관계를 살펴본 Shon, Nho, Huh, Jung, Lee와 Kim(2001)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이를 간접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즉, Shon 등(2001)의 연구에서도 내재화 문제의 경우 외현화 문제와는 달리 어머니로부터 애정을 유의미하게 적게 받았다고 지각한 경우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어머니의 애정과 같은 정서적 측면과 내재화 문제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 중에서는 친구지지가 내재화 문제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내재화 문제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결과는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 장애형제가 없는 청소년보다 친구지지를 더 중요하게 지각하며, 만성질환을 가진 형제를 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친구지지의 증가에 따라 신체증상, 우울/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이 줄어든다고 한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Park, 2007; Williams et al., 2002). 따라서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들에게 친구의 긍정적인 지지는 그들의 발달 단계상, 그리고 그들의 형제 관계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감정을 이해받고, 수용 받는다는 안전감을 느끼게 하고 형제와 할 수 없는 많은 상호작용을 친구들과 나눔으로써 내재화 문제를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내재화 문제의 경우 점수의 분포가 정규분포의 형태가 아니라 낮은 내재화 점수 쪽으로 편포되어 있었다. 따라서 내재화 문제의 수준이 중간 수준 이상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다른 결과가 발견 될 수도 있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해석해보면,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가 장애형제를 더 편애한다고 지각하여도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이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다. 물론 이들이 장애형제로 인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장애형

제와 관련된 상황에 따른 충분한 설명과 합리적 근거를 제시한 양육행동을 보인다면 이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내재화 문제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애정적인 차별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각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장애형제를 둔 청소년의 부모들이 이를 유념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지도해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높은 사회적 지지는 높은 자아존중감과 낮은 수준의 내재화 문제를 예측하여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 모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장애형제를 둔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지원들로부터 제공받는 높은 사회적 지지가 그들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이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지만, 어머니의 애정적인 차별적 양육행동은 내재화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 및 내재화 문제 모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애정적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내재화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을 중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진 및 내재화 문제 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지의 활용 등 관련 프로그램 마련에 기초적인 연구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라는 연구대상의 특성상 임의표집이 어려웠다. 또한 어머니들과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연구대상을 포함시킬 수 없어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에게 일반화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히며, 추후 연구들에서는 좀 더 다양한 지역에서 임의표집된 장애형제를 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하기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 집단만을 대상으로 연구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장애형제가 없는 청소년 집단을 통제집단으로 두는 비교연구설계를 활용하여 연구를 하였더라면 장애형제를 둔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 결과 해석에 있어 좀 더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설계를 통해 연구하는 경우, 장애유형과 장애등급과 같은 본 연구에서 주요 사회인구학적 변수로 통제되었던 변수들을 동일하게 통제할 수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의 주요 제한점으로 남겨 두고, 본 연구의 결과를 장애형제를 둔 청소년들의 경우로 국한시켜 이해하여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자 하며, 추후 장애형제를 둔 청소년에 대한 연구 수행 시 비교연구설계를 통한 연구가 수행하기를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차별정도에 대해서만 고려하였다. 하지만 차별을 지각하는 데 있어 차별에 대한 귀인과 같은 변인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기를 제안한

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부모의 차별적 양육 행동에 대한 측정 도구는 일반형제 관계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더욱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References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Adams, R., Preveler, R. C., Stein, A., & Dunger, D. B. (1991). Siblings of children with diabetes: Involvement, understanding and adaptation. *Diabetic Nedicine, 8*, 855-859.

Alper, S. K., Schloss, P. J., & Scholoss C. N. (1994). *Familie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Consultation and advocacy.* Boston, MA: Allyn & Bacon.

Baek, H. J. (2009). The effects of weekend community sibling support program on sibling relationship of non-disabled sibling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Korea.

Baek, S. A. (2005). A study on maternal parenting attitude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Bang, M. K. (2007). A study of the influence of parenting behavior of mothers with handicapped children on the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non-handicapped sibling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Carnes, S. L., & Quinn, W. H. (2005). Family adaptation to brain injury: Coping and psychosocial stress. *Families, Systems & Health, 23*, 186-203.

Choi, J. S. (2011). The effect of sibling relationship on children's peer attachment and social competency: Compression between siblings of non-disabled versus disabled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Daniels, D., & Plomin, R. (1985). Differential experience of siblings in the same family. *Developmental Psychology, 21*(5), 747-760.

Dubow, E. F.,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52-64.

El-Anzi, F. O. (2005). Academic achievement and its relationship with anxiety, self-esteem, optimism, and pessimism in Kuwaiti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3*(1), 95-104.

Eoh, Y. K. (2005). The effects of the vulnerable family on the depression and behavioral problems of adolescents: The protective effect of social supports and personal featur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Faux, S. A. (1991). Sibling relationships in families with congentially impaired children.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6*, 175-184.

Feinberg, M. E., Neiderhiser, J. M., Simmens, S., Reiss, D., & Herherington, E. M. (2000). Sibling comparison of differential parental treatment in adolescence: Gender, self-esteem, and emotionality as mediators of the parenting-adjustment association. *Children Development, 71*(6), 1611-1628.

Gallagher, J. J., Beckman, P., & Cross, A. H. (1983) Families of handicapped children: Sources of stress and its amelioration. *Exceptional Children, 50*, 10-19.

Gold, N. (1993). Depression and social adjustment in siblings of boys with autism.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 23*(1), 147-163.

Hall, A. B. (1988). *Siblings of handicapped children: A study of self-concept, frustration and attitudes doctorol dissertation research.* Northeastern University.

Han, E. J. (2011). The effect of the group play therapy with sand tray program on the self-esteem of the non-disabled child with a disabled sibl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Korea.

Han, M. H. (1989). Sibling relationships depending on the sibling structure and parental differential behavior perceived by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Korea.

Han, M. H. (1996). A study on stress, perceived social supports, and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Seoul, Korea.

Harter, S. (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E. M.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Wiley

Harter, S. (1985).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revision of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University of Denver.

Houtzager, B. A., Grootenhuis, M. A., Caron, H. N., & Last, B. F. (2004). Quality of life and psychological adatation in siblings of pediatric cancer patients, 2 years after diagnosis. *Psycho-Oncology, 13*(8), 499-511.

Houtzager, B. A., Grootenhuis, M. A., Hoekstra-Weebers, J. E. H. M., & Last, B. F. (2005). One month after diagnosis: Quality of life, coping and previous functioning in siblings of children with cancer.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1*(1), 75-87.

Joo, H. S. (1993). A Study on the attitude of mother and mentally retarded infants of the kinder-gart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gguk University, Gyeonggi-do, Korea.

Jung, E. S. (1992). The normal siblings' self-esteem and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attitude towards a sibling with mental retard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Daegu, Korea.

Kang, W. Y., & Shin, H. J. (2001). A study of the relationship on sibling of children with autism. *Journal of Emotional Disturbances & Learning Disabilities, 17*(1), 381-412.

Kim, E. H. (2009). The relationship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to ego-resilience in sibling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gguk University, Gyeonggi-do, Korea.

Kim, G. J. (2002). A Study compare self-concept between the secondary schoolers having autistic siblings and those having normal sibling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Kim, H. H. (1998). Development of self-esteem in adolescence: It's relation to environmental variables and adjust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usan University, Busan, Korea.

Kim, H. H., & Kim K. Y. (1996). Research: Development of self - esteem inventory for children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4*(5), 1-12.

Lee, E. J. (2010). The effects of the group art therapy program on the sibling relationship and interaction in non-disabled siblings with disabled sibling.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 Disorders, 26*(2), 241-261.

Lee, E. M. (2003). The relationship among children's perception of differential parenting, attribution and self-Image in 5th and 8th grade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Lee, H. J. (2004). The formation of self-concept and problematic behavior according to the discriminative perception of children toward the parenting of their par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i University, Seoul, Korea.

Lee, J. Y. (2012). The effects of siblings-related stress on depression of other siblings without disabilities: Focusing with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elf-esteem.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1*(1), 63-76.

Lee, M. E., & Park. H. S. (2010). The effects of dramatherapy on stress,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non-disabled children with disabled sibling. *The Korean Journal of Arts Therapy, 10*(1), 149-169.

Lee, S. M. (2009).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of disable children on the psychological conflict of non-disabled sibling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Seoul, Korea.

Lee, S. M. (2010). A study on stress of sibling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ji University, Gangwon-do, Korea.

Lee, Y. J. (2007). Comparative study about concept or teenagers' self whether they have handicapped children or not. Unpublished master's thesis, Nazarene University, Chungnam, Korea.

Lim, H. K. (2002). The adaptation improvement program for non-disabled siblings of the families with disabled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McHale, S. M., & Gamble, W. C. (1989). Sibling relationships of children with disabled and nondisabled brothers and sist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5*, 421-429.

McHale, S. M., Slaon, J., & Simeonsson, R. J. (1986). Sibling relationships of children with autistic, mentally retarded and nonhandicapped brothers and sister.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 16,* 339-413.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d. (2004). *The Adolescent Psychology*. Seoul: Kyoyookbook.

Oh, K. J., Ha, E. H., Lee, H. R., & Hong G. E. (2001). *K-YSR.* Seoul: Central Aptitude Institute.

Park, H. Y. (2007).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people with disabled sibling and its correlat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Park, Y. Y., & Jeon, G. Y. (2009). Sibling relationship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0*(6), 43-59.

Powell, T. H., & Gallagher, P. A. (1993). *Brothers and sister: A special part of exeptional families (2nd Ed.)*. Baltimore: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Rohner, R. P. (1986). *The warmth dimension.*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

Sang, M. H. (1998). The parental differential treatment perceived by children: Antecedents and its relations to their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Santrock, J. W. (1996). *Adolescence: An introduction.* Madison, WC: WCB Brown & Benchmark.

Seligman, M., & Darling, R. B. (2007). *Ordinary families, special children (3rd ed.).* New York: Guilford.

Seo, J. S., & Park, H. J. (2009). Effects of perceived openness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self-esteem of adolescents with siblings with special need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1), 93-115.

Shin, H. Y. (2002). Study on problem behavior and sibling relationship of adolescents without disability who have developmentally disabled sibling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Sohn, S. H., Noh, K. S., Huh, M. Y., Jung, H. O., Lee, S. H., & Kim, S. J. (2001). A study of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and parenting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0*(4), 605-615.

Trzesniewski, K. H., Donnellan, M. B., Moffitt, T. E., Robins, R. W., Poulton, R., & Caspi, A. (2006). Low self-esteem during adolescence predicts poor health, criminal behavior, and limited economic prospects during adult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2*, 381-390.

Vermaes, I. P. R., van Susante, A. M. J., & van Bakel, H. J. A. (2012).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siblings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chronic health conditions: A meta-analysi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7*(2), 166-184.

Williams, P. D., Williams, A. R. Graff, J. C., Hanson., Stanton, A., Hafeman, C., Liebergen, A., Leuenberg, K., Karlin, R, Ridder, L., Curry, H., Barnard, M., & Saders, S. (2002). Inter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affecting well siblings and mothers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a chronic illness of disability.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5*(5), 411-424.

Wolf, L., Fisman, S., Ellison, D., & Freeman, T. (1998). Effect of sibling perception of differential parental treatment in sibling dyads with one disabled chil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7*, 1317-1325.

Wood, L. J., Sherman, E., Hamowka, L., Blackman, M., & Wirrell, E. (2008). Depression, anxiety, and quality of life in siblings of children with intractable epilepsy. *Epilepsy & Behavior, 13*, 144-148.

Yoon, H. R. (2010). Factors that affect the stress of non-disabled adolescents with disabled sibling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Yoon, S. J., & Kang, S. H. (2011). The relationships of perceived attachment, social support and problem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Fish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3*(4), 582-595.

Received November 29, 2013
Revision Received February 23, 2014
Accepted March 28, 2014